

## 다자이후 디오라마: 자연 지형을 활용한 방위

다자이후는 7세기부터 12세기에 걸쳐 규슈의 실질적인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시가 있는 장소는 지역의 지형적인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디오라마는 어떻게 주변의 산들과 풍경이 자연의 험난한 길을 형성하고, 침입자들로부터 제대로 방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자이후는 아시아 대륙과 가깝다는 지리적인 특징에 따라 외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하카타만에 입항한 외국 사절단이 가장 먼저 거쳐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가까워 다자이후가 외국의 공격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7세기의 아시아 대륙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일본은 663년에 당나라에 패함에 따라 해외의 위협에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정은 664년에 미즈키(水城)라고 불리는 해자가 설치된 방어벽을 건설하도록 명했습니다. 미즈키는 동서로 산에 둘러싸여 평야가 가장 좁아지는 위치에 1.2km가 넘는 길이로 축조되었으며, 지금의 후쿠오카시가 자리한 해안 평야에서의 잠재적인 공격을 저지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방어를 위해 시오지야마 산 정상에 오노성을 포함한 여러 요새가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들 방어 시설의 옛 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자이후의 도시 면적은 약 2km<sup>2</sup>로 정방위에 기반하여 격자 모양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동아시아 도시의 특징입니다. 규슈 각지에서 이곳으로 모인 사람들과 고급 관리, 상인, 그리고 외국 사절단이 빈번하게 왕래했습니다.

12세기 이후 도시의 모습은 변화했지만, 이곳은 14세기까지 정치의 중심지로서 크게 번영했습니다.